KOSDAQ | 반도체와반도체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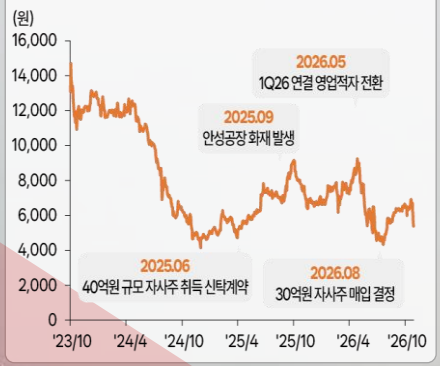
티이엠씨씨엔에스 (241790)

소재 정상화와 장비 성장의 이중 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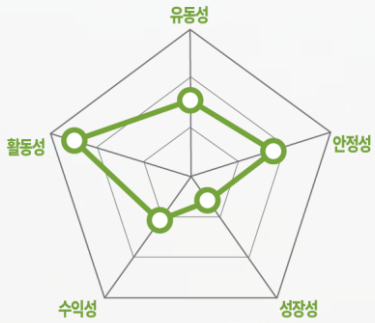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SK하이닉스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장비 매출 성장 기대. 용인·청주 신규 팹 투자에 힘입어 CCSS 수주 확대가 예상되며, 관련 매출은 2027년부터 본격화 전망. 2026년 상반기 말 별도 기준 장비 수주잔고는 1,475억원으로, 신규 수주의 매출 전환과 외형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
- 반도체 전구체 공급 정상화에 따른 수익성 회복. 2025년 안성공장 화재 이후 중단됐던 전구체 공급이 2026년 하반기부터 재개되면서 소재 매출의 점진적인 회복 예상. 2027년에는 고마진 전구체 공급 확대와 신규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로 이익 개선 본격화 전망
- 상반기 부진에도 하반기 장비 매출 회복으로 흑자 전환 기대. 2026년 연결 매출액은 1,703억원(+1.4% YoY), 영업이익은 2억원(-98.3% YoY, OPM 0.1%)으로 전망. 상반기에는 소재 공급 차질과 장비 매출 인식 지연으로 영업손실 35억원을 기록했으나, 하반기에는 주요 장비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확대에 힘입어 영업이익 37억원으로 흑자 전환 예상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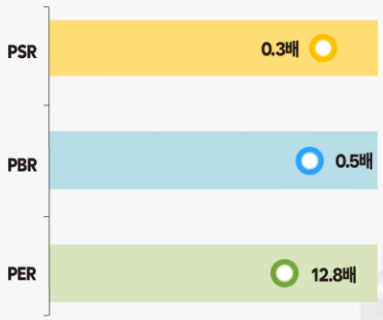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2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티이엠씨씨엔에스 (241790)

KOSDAQ

반도체와반도체장비

Analyst 오정하 jh.oh@kirs.or.kr
RA 권지승 rnjswltmd32@kirs.or.kr

반도체 소재와 인프라 장비를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

티이엠씨씨엔에스는 반도체 공정용 전구체·특수가스와 화학물질 중앙공급장치(CCSS)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2025년 연결 매출 기준 반도체 장비 65.9%, 반도체 소재 26.5%, 2차전지 장비 7.6%로 구성되며,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설비투자 확대와 반도체 소재 공급 정상화

SK하이닉스의 용인·청주 신규 생산시설 투자에 따른 장비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2026년 상반기 말 별도 기준 장비 수주잔고는 1,475억원으로, 2027년부터 관련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마진 전구체 공급 정상화에 따른 소재 부문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

하반기 실적 회복세 진입, 2027년 정상화 기대

2026년 연결 매출액은 1,703억원(+1.4% YoY), 영업이익은 2억원(-98.3% YoY)으로 전망한다. 상반기에는 소재 공급 차질로 영업손실 35억원을 기록했으나, 하반기에는 장비 매출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에 힘입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2026F P/E는 43.8배로, 2027년 실적 회복 여부가 밸류에이션의 핵심 변수다.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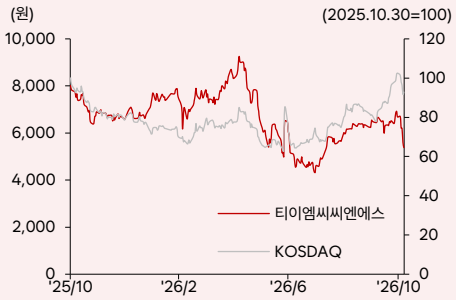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1,650	1,403	1,935	1,680	1,703
YoY(%)	75.6	-14.9	37.9	-13.2	1.4
영업이익(억원)	228	133	59	90	2
OP 마진(%)	13.8	9.5	3.1	5.4	0.1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44	130	95	42	12
EPS(원)	1,443	1,298	947	420	123
YoY(%)	8.3	-10.1	-27.0	-55.6	-70.8
PER(배)	9.2	9.9	4.9	15.7	43.8
PSR(배)	0.8	0.9	0.2	0.4	0.3
EV/EBITDA(배)	4.4	6.7	4.0	4.1	6.8
PBR(배)	1.4	1.2	0.4	0.6	0.5
ROE(%)	16.2	13.1	8.8	3.8	1.1
배당수익률(%)	3.2	1.6	3.2	1.1	1.3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1/6)		5,380원
52주 최고가		9,240원
52주 최저가		4,320원
KOSDAQ (11/6)		644.27p
자본금		50억원
시가총액		538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0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6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4억원
외국인지분율		2.42%
주요주주	티이엠씨	33.40%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6.5	-41.8	-29.9
상대주가	19.3	9.4	-2.2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기업 개요 및 연혁

반도체 소재와 인프라 장비, 2차전지 장비를 함께 영위

티이엠씨씨엔에스는 반도체 공정용 소재와 반도체 팹(FAB) 인프라 장비, 2차전지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소재 부문에서는 HCDS, TiCl4, BDEAS 등 전구체(Precursor)와 Si2H6(디실란), GeH4(저메인) 등 특수가스, CMP 공정용 Cu 슬러리를 생산한다. 장비 부문에서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장치(CCSS)와 슬러리 공급장치(SSS), 2차전지 전해액 중앙공급장치(CESS)를 제조하며, 종속회사 제일이엔지는 반도체 가스공급장치(Gas Cabinet, VMB)를, 와이에이치티는 2차전지 폴딩·검사장비를 생산한다.

티이엠씨씨엔에스는 2012년 3월 오션브릿지로 설립되어 초기에는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고 국내 반도체 고객사에 공급하는 유통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14년 경기도 안성으로 본사를 옮기며 반도체 장비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2016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고, 2017년 10월 협력사였던 제일이엔지를 종속회사로 편입해 장비 포트폴리오를 가스공급장치로 확대했다.

2차전지 사업은 반도체 화학물질 공급장치 기술을 전해액 공급장치(CESS)로 확장하면서 시작됐다. 2021년 중국 CESS 설치공사 수주로 시장에 진입했고, 2022년 5월 2차전지 폴딩·검사장비 업체 와이에이치티를 인수했다. 2023년 11월 특수가스 업체 티이엠씨가 최대주주에 오르며 계열사로 편입됐고, 2024년 3월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티이엠씨씨엔에스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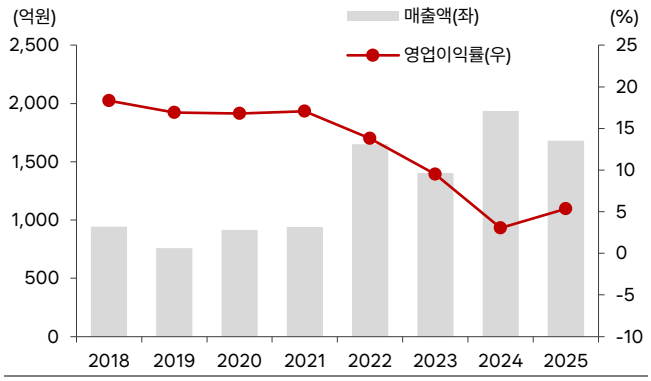
2012~2015 설립기: 소재 유통·장비 진입		2016~2020 구축기: 상장·생산 기반 구축		2021~2023 성장기: 2차전지 장비 진출		2023~현재 재편기: 티이엠씨 계열 편입	
2012.03	오션브릿지(주) 설립	2016.12	코스닥시장 상장	2021	2차전지 전해액 공급장치(CESS) 진출	2023.11	최대주주 변경(티이엠씨(주))
2013.08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7.10	(주)제일이엔지 종속회사 편입	2022.05	(주)와이에이치티 종속회사 편입	2024.03	사명 변경(티이엠씨씨엔에스(주))
2014.01	본점 이전(안성 제1공장), 반도체 장비 사업 개시	2017.11	안성 제3공장 준공	2023.02	미국 법인 종속회사 편입	2025	동탄 T커넥트 개설(계열 통합 오피스)
		2018.08	중국 우시 법인 종속회사 편입	2023	2차전지 장비 대규모 수주	2025.09	안성 제1공장 화재, 전구체 생산 보은 이전
		2018.12	보은 제2공장 준공, (주)미래하이트론 합병	2023.09	항가리 법인 종속회사 편입	2026.03	본점 이전(충북 보은)
		2020.07	최대주주 변경(팬아시아반도체소재)				

자료: 티이엠씨씨엔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연결 매출액 1,680억원, 영업이익률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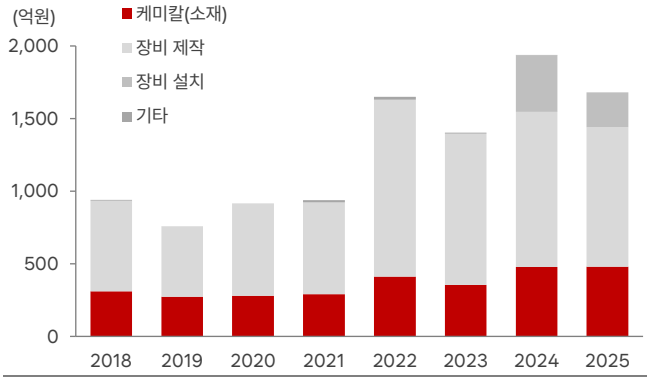
티이엠씨씨엔에스의 2025년 연결 매출액은 1,680억원(YoY -13.2%), 영업이익은 90억원(YoY +51.9%, OPM 5.4%)이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케미칼(소재) 481억원(매출 비중: 28.6%), 장비 제작 961억원(57.2%), 장비 설치 239억원(14.2%)으로 구성된다.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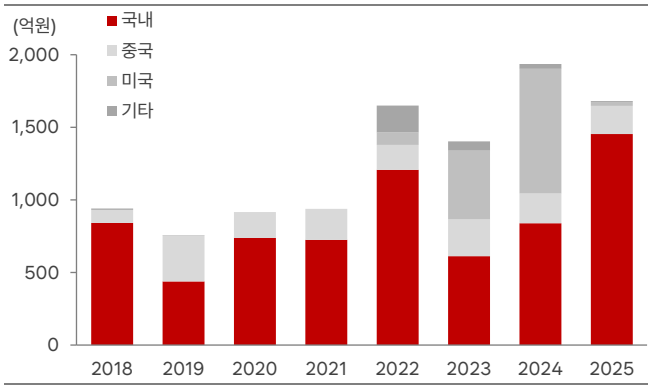
자료: 티이엠씨씨엔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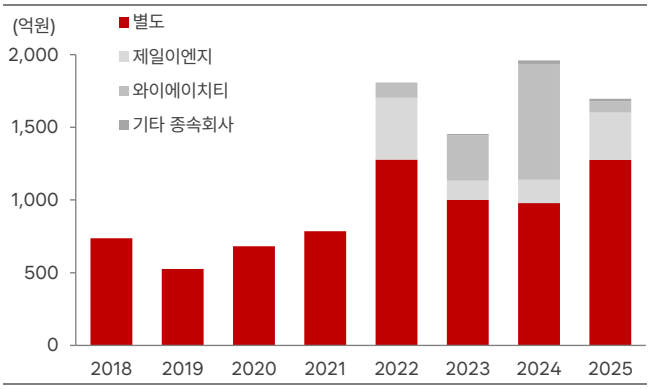
자료: 티이엠씨씨엔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지역별 매출액 추이



자료: 티이엠씨씨엔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법인별 매출액 추이



주: 연결조정 전 기준.

자료: 티이엠씨씨엔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주주구성 및 자회사

티이엠씨 중심의 지배구조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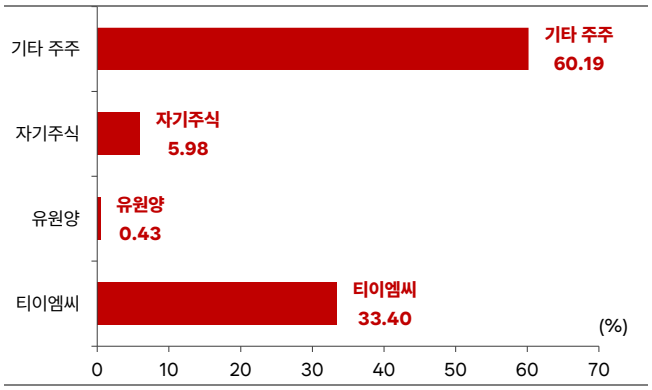
티이엠씨씨엔에스의 최대주주는 코스닥 상장사인 티이엠씨로, 2026년 6월 말 기준 지분 33.40%를 보유하고 있다. 티이엠씨의 최대주주인 유원양 대표이사는 동사 지분 0.43%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33.83%다. 유원양 대표이사는 티이엠씨 지분 23.66%를 보유하고 있어, 유원양 대표이사 → 티이엠씨 → 티이엠씨씨엔에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동사는 2023년 11월 티이엠씨 계열로 편입됐으며, 2024년 3월 기존 오션브릿지에서 티이엠씨씨엔에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반도체·2차전지 장비 자회사 보유

동사는 2026년 6월 말 기준 6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국내 자회사는 반도체 가스공급장치를 제조하는 제일이엔지(지분율 54.35%)와 2차전지 장비를 생산하는 와이에이치티(99.23%)다. 제일이엔지는 2017년 인수한 기업으로,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가스공급장치를 생산하며 기존 케미칼 공급장비 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와이에이치티는 2022년 인수한 2차전지 장비업체로, 배터리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폴딩 및 검사장비를 생산한다. 이외 중국 우시, 미국, 헝가리에 현지 판매 및 고객지원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헝가리 YH-TECH Kft는 와이에이치티가 지분 100%를 보유한 손자회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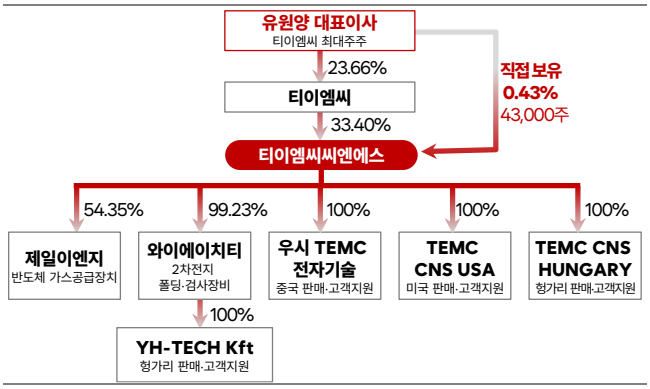
주요 자회사 중 제일이엔지는 2025년 매출액 324억원, 당기순이익 1억원을 기록했으며, 2025년 말 자산총계는 191억원이다. 와이에이치티는 같은 기간 매출액 78억원, 당기순손실 75억원을 기록했으며, 자산총계는 279억원이다. 특히 와이에이치티는 2025년 말 자본총계가 -39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했다. 2026년 1분기에도 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실적 부진이 지속됐다. 향후 와이에이치티의 수주 회복과 재무구조 개선 여부가 연결 수익성 및 재무 부담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판단한다.

티이엠씨씨엔에스 주요주주 지분율



자료: 티이엠씨씨엔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티이엠씨 지배구조



주: 2026년 6월말 기준
자료: 티이엠씨,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사업부별 설명 및 주요 보유 기술

반도체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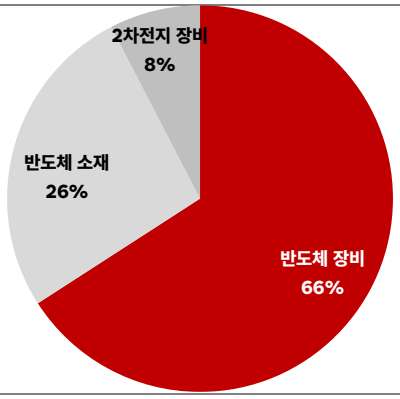
티이엠씨씨엔에스는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한 반도체 소재·장비 전문기업이다. 반도체 공정용 전구체와 특수가스, 화학물질 및 가스 공급장치를 제조하며, 2차전지 생산설비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2025년 연결 매출액 1,680억원 기준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반도체 장비 65.9%, 반도체 소재 26.5%, 2차전지 장비 7.6%다. 반도체 소재 사업은 증착·식각 공정용 전구체와 특수가스를, 반도체 장비 사업은 화학물질 및 가스 공급장치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2차전지 장비 사업은 전해액 중앙공급장치와 배터리 폴딩·검사장비를 공급한다.

반도체 장비(매출 비중 66%)

반도체 장비 사업은 화학물질 중앙공급장치(CCSS), 슬러리 공급장치(SSS), 가스공급장치(Gas Cabinet) 및 가스분배장치(VMB)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CCSS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일정한 농도와 유량으로 공급하는 장비다. 산화, 포토, 식각, 증착 등 다양한 공정에 적용되며, 화학물질의 혼합비율과 공급량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SSS는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CMP 공정에 사용되는 연마제를 혼합·희석해 공급하는 장비다. 연마제의 입자 균일성과 혼합비율이 공정 품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안정적인 공급 및 자동제어 기술이 요구된다.

종속회사 제일이엔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공급장치와 분배장치를 제조한다. Gas Cabinet은 고압가스 용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일정한 압력과 유량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장비이며, VMB는 공급받은 가스를 여러 생산설비에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고순도 가스의 오염을 방지하고 누출 발생 시 자동 차단하는 안전제어 기술이 핵심이다. 동사는 화학물질 및 가스공급장치의 설계부터 제작, 배관 설치, 유지보수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사별 생산라인에 맞춘 설비 구축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2025년 연결 매출액 기준 사업 포트폴리오



자료: 티이엠씨씨엔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티이엠씨씨엔에스 주요 제품 및 제조법인

사업부문	구분	제품군	제조
반도체	소재	Precursor(전구체)	티이엠씨씨엔에스
		Process Chemical	
		Specialty Gas	
	장비	CCSS	티이엠씨씨엔에스
		Gas VMB	제일이엔지
2차전지	장비	CESS	티이엠씨씨엔에스
		폴딩/검사 장비	YHT

자료: 티이엠씨씨엔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소재(매출 비중 26%)

반도체 소재 사업은 증착 및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Precursor), 특수가스(Specialty Gas), 공정용 화학소재(Process Chemical)로 구성된다. 주요 제품은 HCDS, TiCl4, BDEAS 등의 전구체와 Si2H6(디실란), GeH4(저메인) 등의 특수가스, CMP 공정용 Cu Slurry(구리 연마제)다. 전구체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절연막이나 금속막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원료이며, 특수가스는 박막 형성 과정에 필요한 반응물로 활용된다. Cu Slurry는 반도체 배선공정에서 구리 표면을 연마하고 평탄화하는 데 사용된다.

주요 제품인 HCDS는 D램과 낸드플래시 제조 과정에서 실리콘 산화막(SiO2)과 질화막(SiN)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낮은 온도에서도 균일한 박막을 형성할 수 있어 반도체 미세화와 낸드플래시 적층 수 증가에 대응하는 소재다. BDEAS는 미세 회로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이중 패터닝 공정에 사용되며, TiCl4는 금속 배선 간 누설전류를 방지하는 배리어 메탈 형성에 적용된다. Si2H6는 기존 모노실란(SiH4) 대비 낮은 온도에서 빠르고 균일한 실리콘 박막 증착이 가능한 특수가스다. 반도체 미세화에 따라 증착 공정의 정밀도가 높아지면서 소재의 순도와 반응 특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동사는 고순도 소재 제조 및 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화학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소재는 미세 불순물이나 파티클이 웨이퍼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순도 정제와 품질관리 역량이 핵심 경쟁요소다. 회사는 기존 실리콘계 전구체 외에도 저온 증착용 소재와 W, Mo, Co, Ru 등 차세대 금속 전구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해당 개발 품목의 상용화 및 매출 기여 규모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소재 사업은 장비와 달리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에 따라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로, 고객사의 웨이퍼 생산량과 공정 미세화가 주요 실적 변수다.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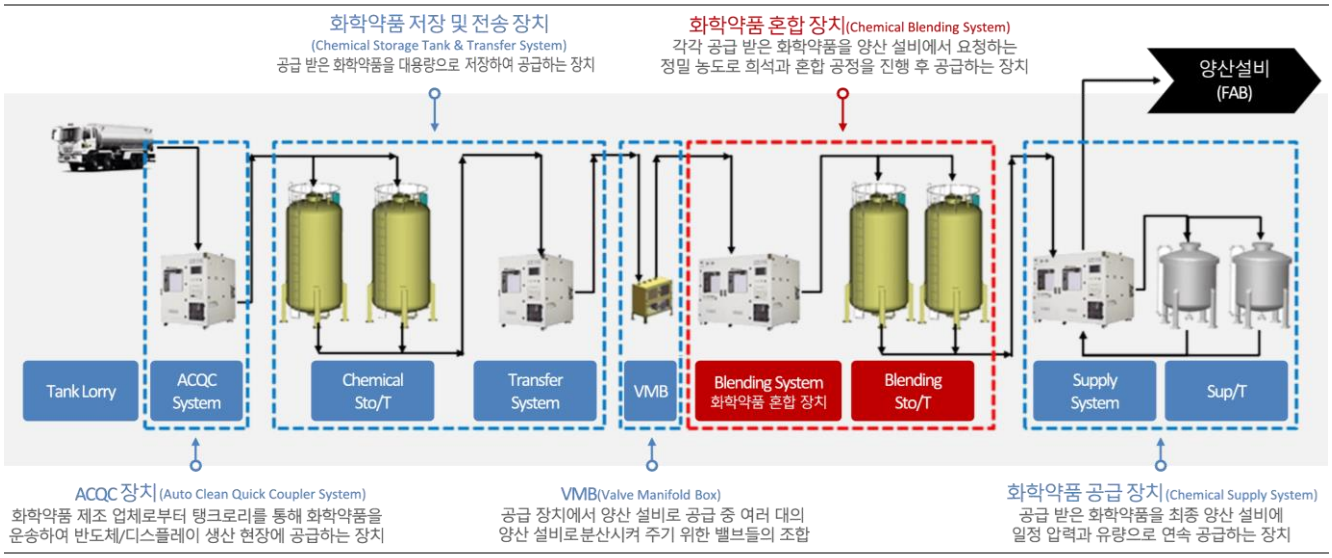
1 CCSS 시장 및 경쟁구도

국내 CCSS 시장의 경쟁구도 및 주요 업체 현황

반도체 화학물질 중앙공급장치(CCSS)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화학약품을 중앙에서 저장·혼합한 후 각 생산장비에 공급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산화, 포토, 식각, 증착 등 다양한 공정에 적용되며, 화학약품의 순도 유지와 정밀한 농도·유량 제어가 중요하다. CCSS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필수 인프라 장비로 신규 FAB 건설 및 생산라인 증설에 따라 수요가 발생한다. 특히 화학물질의 오염과 공급 불안정은 반도체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공급실적과 고객사 대응 역량이 중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CCSS는 국내 업체들의 기술 내재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시장이다. 국내 주요 업체로는 에스티아이, 한양이엔지, 티이엠씨씨엔에스(구 오션브릿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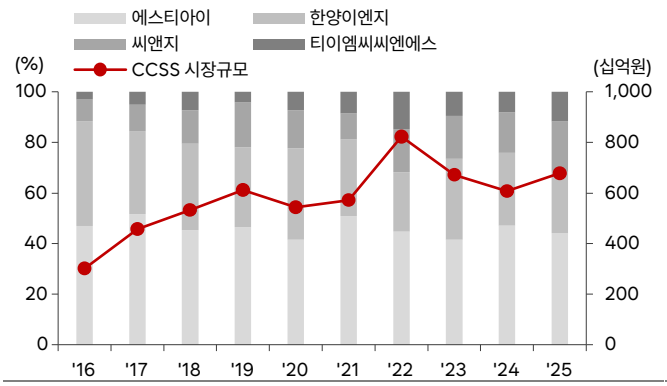
국내 CCSS 시장은 최근 5년간 에스티아이와 한양이엔지가 과점하고, 씨앤지하이테크와 티이엠씨씨엔에스가 뒤를 잇는 구도로 형성되었다. 에스티아이는 대규모 CCSS 공급 실적과 폭넓은 장비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으며, 씨앤지하이테크는 초정밀 유량 제어와 농도 관리가 필요한 화학약품 혼합장치에 특화되어 있다. 반면 티이엠씨씨엔에스는 CCSS와 슬러리 공급장치(SSS)를 비롯해 반도체 전구체와 특수가스를 함께 공급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장비사업은 고객사의 설비투자, 소재 사업은 웨이퍼 생산량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실적 성장 요인이 차별화된다.

CCSS 공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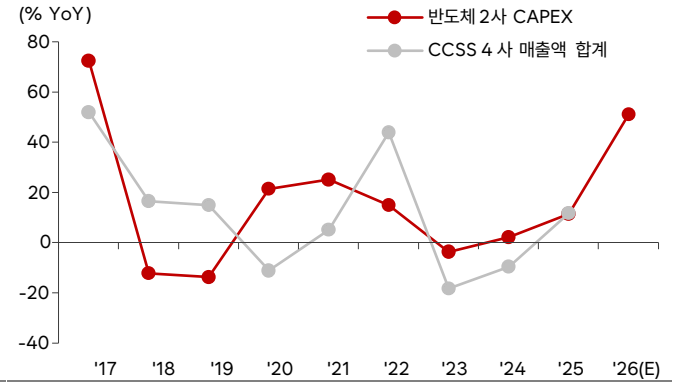
자료: 씨앤지하이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CCSS 4개사 합산 매출액 및 비중 추이



자료: 각 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CAPEX와 CCSS 시장 증가율 추이



자료: 각 사, Quanti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메모리 반도체 CAPEX 확대에 따른 CCSS 수요 증가 전망

메모리 반도체 CAPEX 확대 = CCSS 수요 확대

중앙공급장치는 반도체 공장 구축 초기 단계에 설치되는 인프라 장비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되며, 고객사의 신규 FAB 건설 및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수요가 발생한다. 특히 생산공정에 직접 적용되는 메인 장비보다 공장 구축 초기에 발주되는 특성이 있어 반도체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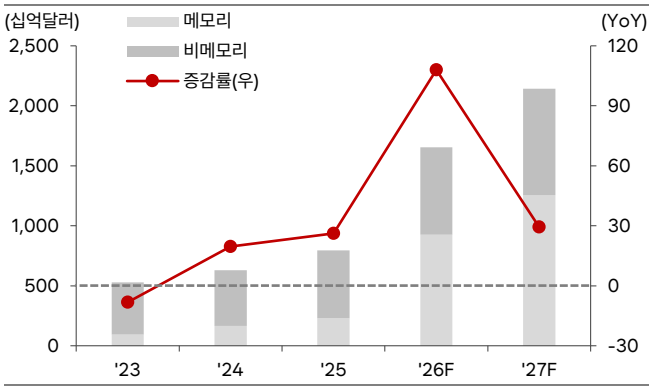
2026년 10월 SEMI가 발표한 최신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300mm 팹(Fab) 장비투자액은 2026년 1,490억달러(+31.0% YoY)에 달하고,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16%, 12% 증가할 전망이다. 2029년에는 2,270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수요 증가에 따른 첨단 메모리 투자 확대가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메모리 부문 장비 투자액은 2026년 32%, 2027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300mm 생산능력도 2026년 7%, 2027~2029년 연평균 약 8% 확대될 전망이다.

신규 생산시설 건설도 확대되고 있다. SEMI는 글로벌 300mm 팹 건설투자액이 2026년 475억달러(+23% YoY), 2027년 633억달러(+33%), 2028년 68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300mm 팹 및 생산라인 착공 건수도 2026년 20개, 2027년 18개로 예상된다.

국내 반도체 투자의 양대 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 확대는 CCSS 수요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의 2026년 3분기 누적 시설투자액은 56.9조원(+76.7% YoY)을 기록했으며, 이 중 반도체(DS) 부문 투자액은 52.8조원에 달했다. 평택 P4 생산라인 증설과 P5 신규 FAB 건설,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투자가 주요 프로젝트다. SK하이닉스 역시 청주 M15X 생산능력 확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FAB(Y1)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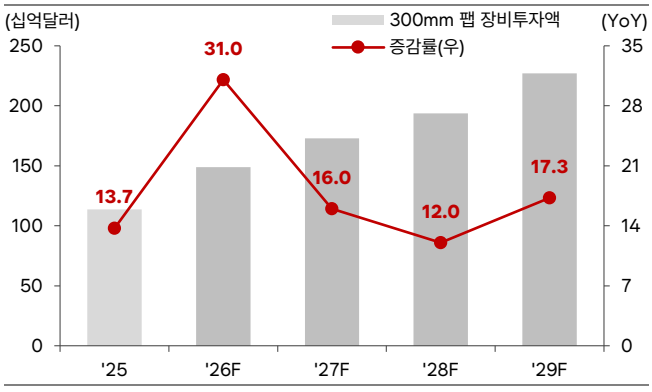
2027년 이후에도 국내외 신규 FAB 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평택 P5 및 미국 테일러 공장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2026년 8월 용인 Y2에 35.2조원, 청주 M17에 19.1조원 등 총 54.3조원의 신규 투자를 확정했다. M17과 Y2는 각각 2027년 2월과 7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CCSS는 클린룸 개설 이전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주로 발주·설치되는 장비인 만큼 신규 FAB 착공 및 후속 생산라인 증설에 따른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반도체 시장 규모



자료: WSTS(26년 8월),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300mm 팹 장비 투자액 및 증감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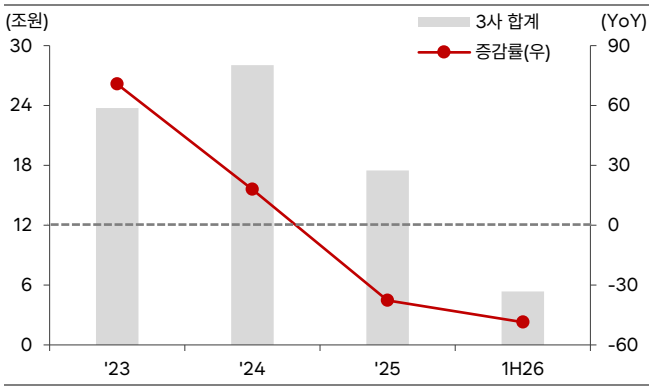
자료: SEMI(26년 10월),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2차전지: 전기차 투자 둔화 속 ESS 중심 수요 확대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은 전기차(EV) 수요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 확대와 북미 전기차 수요 불확실성으로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의 신규 설비투자는 위축되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설비투자는 2026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48.5% 감소했다. 반면 ESS 시장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BloombergNEF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은 2025년 307GWh에서 2027년 638GWh로 약 2.1배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IEA는 글로벌 데이터센터용 ESS 누적 설치용량이 2025년 4.5GW에서 2030년 최소 21.5GW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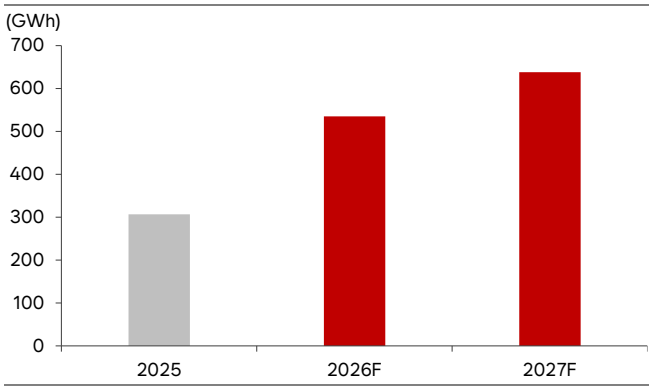
2차전지 장비 시장은 배터리 제조사의 신규 공장 건설과 생산라인 증설에 영향을 받는다. 티이엠씨씨엔에스는 전해액 공급장치를 공급하고 있으며, 자회사 와이에이치티를 통해 폴딩 및 검사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해액 공급장치는 배터리 생산공정에 전해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설비로, 신규 생산라인 구축 시 수요가 발생한다. 최근 ESS용 생산설비 투자 확대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도 기존 전기차 생산라인의 ESS용 전환과 신규 생산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관련 장비 발주 증가가 기대된다.

국내 배터리 3사 설비투자 축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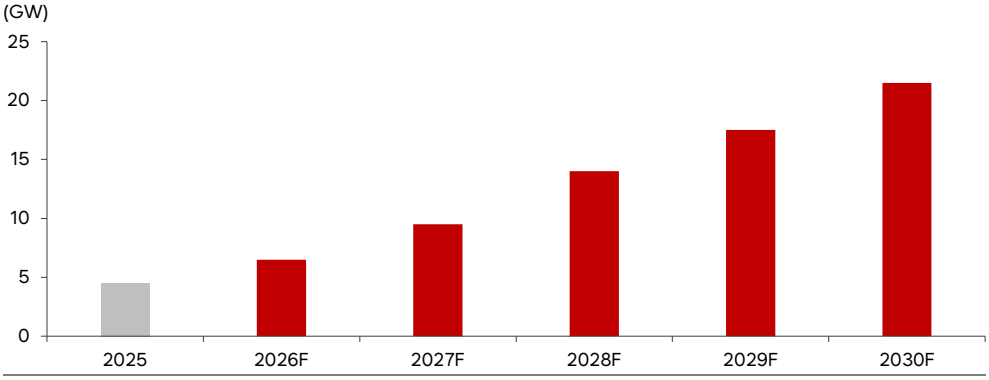
자료: 각 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ESS 배터리 신규 설치량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NEF(26년 10월),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데이터센터용 ESS 누적 설치용량 전망



주: IEA 하단 전망 기준

자료: IEA(26년 4월),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고객사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장비 매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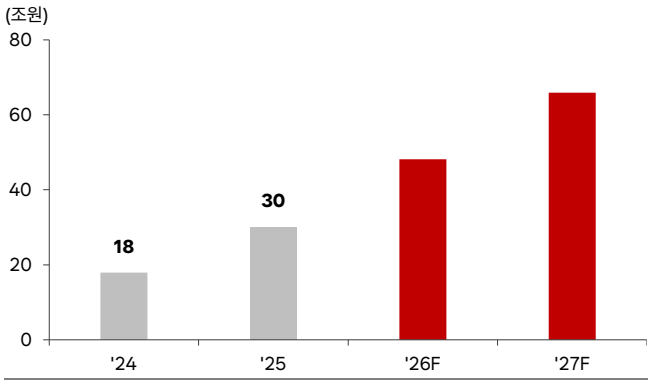
용인·청주 증설에 따른 수주 기대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장비 사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용인 1기 팹의 1단계 클린룸은 2027년 1분기, 청주 P&T7은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웨이퍼 투입을 시작한 청주 M15X의 생산능력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용인 1기 팹에는 2030년까지 약 31조원, P&T7에는 약 1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사는 SK하이닉스의 주요 반도체 인프라 장비 공급업체로, 신규 팹 건설과 기존 생산라인 증설에 따른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반도체 인프라 장비는 생산라인 가동에 앞서 설치되는 필수 설비로, 고객사의 설비투자 확대가 장비 발주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동사는 2026년 6월 SK하이닉스와 252억원 규모의 화학약품 공급장치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6년 상반기 말 별도 기준 장비 수주잔고는 1,475억원을 기록했다. 기존 생산라인에서 축적한 납품 이력과 고객사 설비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용인 및 청주 신규 프로젝트에서도 수주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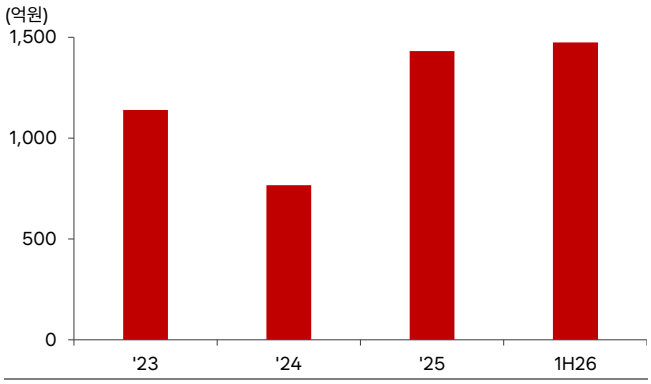
장비 매출 성장은 2027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사는 용인 1기 팹에 대한 장비 납품을 진행했으며, 고객사 설비 설치 및 시운전 일정에 따라 관련 매출의 상당 부분이 2027년 1분기에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용인 1기 팹의 후속 단계와 청주 P&T7 투자 확대가 추가적인 수주 기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용인 클러스터의 생산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중장기 장비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신규 수주의 매출 전환과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가 향후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연간 설비투자 추이 및 전망



주: 27년은 컨센서스
자료: Quantiwise, MarketScreener,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티이엠씨씨엔에스 장비 수주잔고 추이



주: 반도체+2차전지 장비 PO 합산 기준
자료: 다트전자공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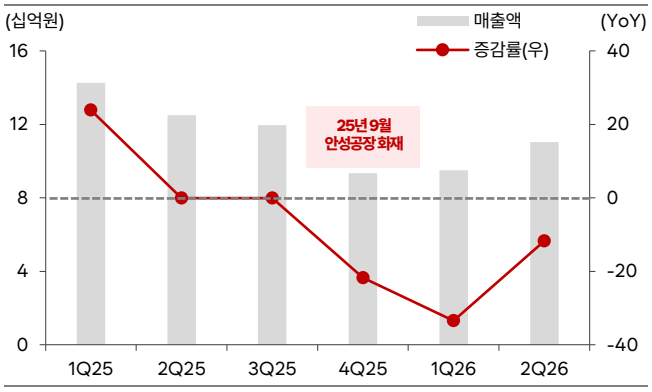
2 반도체 소재 공급 정상화에 따른 수익성 회복

반도체 전구체 공급 정상화 기대

동사의 반도체 소재 사업은 2025년 9월 안성공장 화재 이후 주력 전구체인 HCDS와 TiCl4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생산시설을 보은 2공장으로 이전했으나, 제조지 변경에 따른 고객사의 샘플 및 라인 테스트가 지연되면서 납품 재개가 늦어졌다. 특히 신규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전구체의 매출 공백을 특수가스로 일부 대체하면서 제품 믹스도 악화됐다. 회사에 따르면 화재 이전 반도체 소재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30%에 근접했으나, 전구체 공급 차질로 수익성이 크게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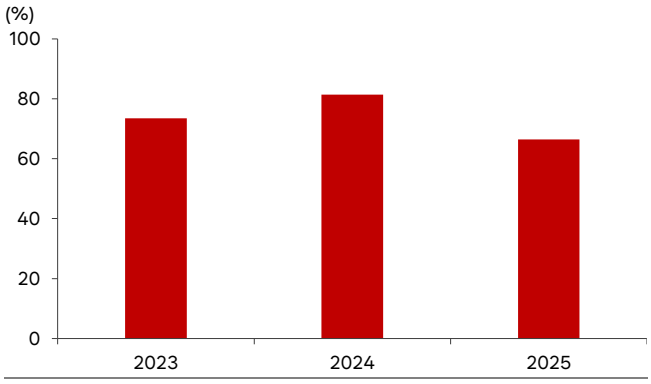
2027년에는 반도체 소재 공급 정상화에 따른 수익성 회복이 기대된다. TiCl4는 2026년 하반기부터 납품을 재개했으나, 현재 공급량은 기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HCDS 역시 공급 재개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전구체 매출 회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SK하이닉스의 DRAM 생산능력 확대와 공정 고도화에 따른 소재 사용량 증가는 중장기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고마진 전구체의 매출 비중 확대와 신규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외형 성장 이상의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수가스 매출액 추이



주: 별도 기준, 자료: 티이엠씨씨엔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소재 가동률(%)



자료: 티이엠씨씨엔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삼성전자 신규 진입을 통한 고객사 다변화

삼성전자 소재 공급 가시화 기대

동사의 반도체 사업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고객사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사는 2023년 티이엠씨에 인수된 이후 삼성전자향 반도체 소재 공급을 추진해왔다. 현재 1개 소재에 대한 샘플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모회사 티이엠씨를 통해 상품 형태로 납품하면서 삼성전자 생산라인에서 평가를 진행 중이다. 당초 예상보다 고객사 평가 일정이 지연됐으나, 늦어도 2027년 1분기 중 라인 테스트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향 신규 진입이 확정될 경우 기존 SK하이닉스 중심의 매출구조가 점진적으로 다변화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소재는 W사, A사 등 기존 공급업체가 시장을 확보하고 있어 초기 공급 물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실적 기여도는 크지 않겠으나,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해 향후 공급 물량 및 제품군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실적 추이 및 전망

1 1H26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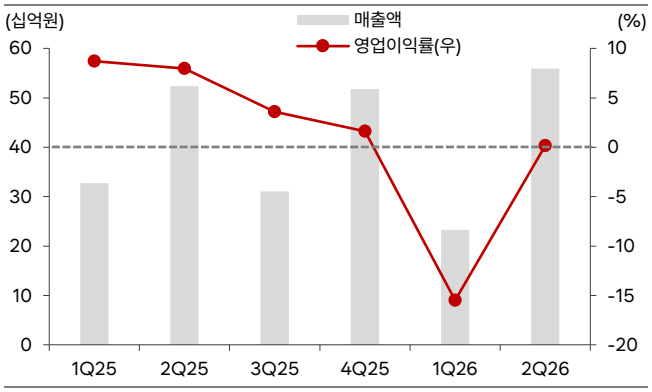
반도체 소재 공급 차질로 수익성 악화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액은 792억원(-7.0% YoY, 이하 YoY), 영업손실은 35억원(적자전환), 영업이익률은 -4.4%(-12.7%p)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0.1억원(-99.6%)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다. 별도 기준 매출액은 556억원(-19.0%), 영업손실은 8억원(적자전환), 영업이익률은 -1.4%(-18.5%p)를 기록했다.

별도 기준 사업부문별로는 반도체 소재(케미칼) 매출액이 205억원(-23.3%)으로 감소하며 외형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2025년 9월 안성공장 화재 이후 HCDS와 TiCl4 전구체의 생산거점을 보은공장으로 이전했으나, 제조시설 변경에 따른 고객사 인증 지연으로 공급이 제한됐다. 장비 매출액 역시 351억원(-16.2%)으로 감소했다. 한편 연결 기준 장비 제작 매출액은 421억원(-5.7%), 설치 매출액은 166억원(+20.7%)을 기록해 설치 매출 증가가 장비 부문의 외형 감소를 일부 방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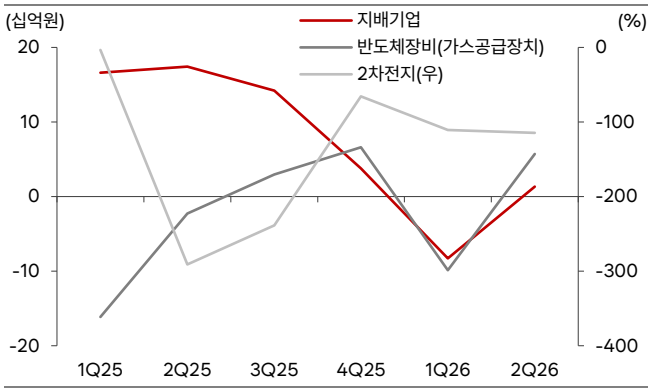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중국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상반기 중국 매출액은 65억원(-46.3%)으로 전년 동기 120억원 대비 약 56억원 감소했다. 이는 연결 매출 감소액 59억원의 약 94%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 매출 감소는 별도법인의 SK하이닉스 우시공장향 전구체 공급 차질과 종속회사 수출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별도법인의 중국 매출 감소액은 약 29억원, 종속회사 및 연결조정에 해당하는 감소분은 약 27억원으로 각각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국내 매출액은 721억원(+1.2%)으로 소폭 증가했다.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자료: 티이엠씨씨엔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본사 및 주요 자회사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티이엠씨씨엔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종속회사별로는 제일이엔지의 실적 개선과 와이에이치티의 적자 지속이 대비됐다. 반도체 가스공급장치 업체인 제일이엔지는 상반기 매출액 220억원(+98.0% YoY), 영업이익 3억원(흑자전환)을 기록했다. 반면 2차전지 장비 자회사 와이에이치티는 고객사의 설비투자 축소로 매출액 19억원(-65.2%), 영업손실 21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와이에이치티의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33억원 대비 축소됐다. 연결 영업이익 감소에는 종속회사보다 별도법인의 적자전환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한다.

영업외손익은 금융손익이 14억원 흑자로 전환되며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다. 또한 약 22억원의 일회성 법인세수익이 발생해 세전손실을 대부분 상쇄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소폭 흑자를 유지했다. 다만 법인세수익은 일회성 요인으로 지속적인 이익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2분기 연결 영업손익은 전분기 36억원 적자에서 소폭 흑자로 전환됐으나, 본격적인 수익성 회복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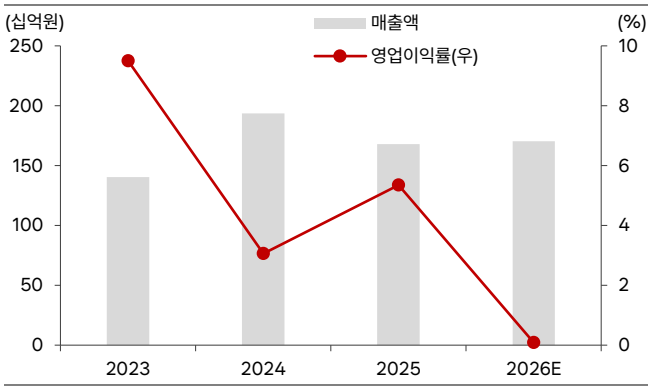
2026년 전망

전구체 공급 재개로 하반기 수익성 회복 기대

2026년 연결 매출액은 1,703억원(+1.4% YoY), 영업이익은 2억원(-98.3% YoY, OPM 0.1%)으로 전망한다. 반도체 장비 매출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해 9월 발생한 안성공장 화재로 중단됐던 전구체 공급이 하반기부터 재개되면서 소재 매출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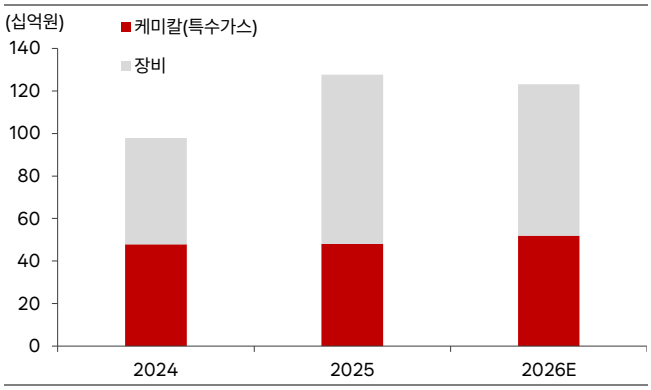
하반기에는 고마진 전구체 공급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과 고정비 부담 완화로 수익성 회복이 기대된다. 동사는 8월부터 전구체 공급을 재개했으며, 연말까지 공급 물량 회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매출원가율도 상반기 91.1%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2026년 당기순이익은 12억원(-70.8% YoY)으로 추정한다. 상반기에 발생한 일회성 법인세 환입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대비 당기순이익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전망이다.

연도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티이엠씨씨엔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별도 기준)



자료: 티이엠씨씨엔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티이엠씨씨엔에스 실적 추정 (단위: 억원, %)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650	1,403	1,935	1,680	**1,703**
지배기업	1,279	1,001	979	1,277	**1,231**
ㄴ 반도체장비(가스공급장치)	424	133	161	324	**334**
ㄴ 2차전지	106	312	796	78	**36**
영업이익	228	133	59	90	**2**
영업이익률	13.8	9.5	3.1	5.4	**0.1**
당기순이익	158	120	87	43	**12**
당기순이익률	9.6	8.6	4.5	2.6	**0.7**
YoY					
매출액	75.6	-14.9	37.9	-13.2	**1.4**
지배기업	63.0	-21.8	-2.1	30.4	**-3.6**
ㄴ 반도체장비(가스공급장치)	-	-68.5	20.9	101.0	**2.8**
ㄴ 2차전지	-	195.5	155.3	-90.2	**-53.9**
영업이익	42.3	-41.5	-55.5	51.9	**-98.3**
당기순이익	7.9	-24.0	-27.2	-51.2	**-70.8**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2027년 실적 정상화에 따른 재평가 기대

소재 수익성 회복과 장비 수주 확대가 핵심

티이엠씨씨엔에스의 시가총액은 약 540억원으로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E 43.8배, P/B 0.5배 수준이다. 반도체 CCSS 사업을 영위하는 한양이엔지와 씨앤지하이테크의 2026F P/E 평균은 5.8배, P/B 평균은 0.6배로 동사의 P/E는 Peer 대비 높은 수준이다. 2026F ROE 역시 1.1%로 Peer 평균 11.2%를 크게 하회한다. 다만 Peer 간 사업구조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양이엔지는 반도체 배관 및 설비 시공 등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사업이 2025년 연결 매출의 85.3%를 차지하며, 씨앤지하이테크는 CCSS 장비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반면 동사는 2025년 상반기 별도 매출(공장 화재 전)의 39.0%가 반도체 소재에서 발생해 장비 외 소재 사업의 기여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Peer와의 직접적인 밸류에이션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2025년 9월 반도체 소재 공장 화재 이후 공급 정상화 지연으로 2026년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27년에는 반도체 소재 사업의 정상화와 장비 매출 확대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반도체 소재 가동률은 공급 재개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생산량 회복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와 고마진 제품 공급 확대가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CCSS 수주 증가가 외형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전자 신규 고객사 인증을 통한 공급처 다변화 역시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소재 가동률 상승과 영업이익 회복이 가시화되면 현재의 높은 P/E 부담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Peer Valuation (단위: 십억원, 배)

지수 및 기업명	종가(원)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P/E		P/B		ROE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티이엠씨씨엔에스	5,380	54	168	170	9	0	15.7	43.8	0.6	0.5	3.8	1.1
에스티아이	18,760	291	328	N/A	20	N/A	31.3	N/A	1.6	N/A	5.6	N/A
한양이엔지	22,750	398	1,118	1,269	54	89	9.2	5.4	0.6	0.6	6.8	11.3
씨앤지하이테크	10,460	102	196	168	25	21	7.9	6.2	1.1	0.7	14.8	11.0
디엔에프	10,200	118	79	N/A	-1	N/A	145.9	N/A	1.2	N/A	0.8	N/A
원익머트리얼즈	29,550	373	322	385	57	69	8.0	6.2	0.7	0.6	9.7	10.9

주: 씨앤지하이테크 및 한양이엔지는 당사 추정치, 그 외 기업들은 시장 컨센서스 참고. 주가는 11월 6일 기준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삼성전자향 고객사 확대 지연 가능성

삼성전자향 인증 지연 우려

티이엠씨씨엔에스의 삼성전자향 신규 공급 확대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동사는 SK하이닉스 중심의 고객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티이엠씨에 인수된 이후 그룹 내 사업 연계를 통한 고객사 다변화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기대돼 왔다. 특히 삼성전자를 기존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티이엠씨와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소재 및 장비의 공급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 창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됐다.

인수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만큼 삼성전자향 추가 인증이 재차 지연될 경우 신규 매출 확보 시점이 늦어지는 동시에 인수 시너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약화될 수 있다. 이는 기존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 완화와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재평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규 인증 완료 및 실제 공급 확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650	1,403	1,935	1,680	1,703
증가율(%)	75.6	-14.9	37.9	-13.2	1.4
매출원가	1,294	1,116	1,683	1,408	1,501
매출원가율(%)	78.4	79.5	87.0	83.8	88.1
매출총이익	355	287	253	273	202
매출이익률(%)	21.5	20.5	13.0	16.2	11.9
판매관리비	127	154	193	183	200
판관비율(%)	7.7	11.0	10.0	10.9	11.7
EBITDA	268	202	133	165	84
EBITDA 이익률(%)	16.2	14.4	6.9	9.8	4.9
증가율(%)	41.9	-24.5	-34.2	23.8	-49.2
영업이익	228	133	59	90	2
영업이익률(%)	13.8	9.5	3.1	5.4	0.1
증가율(%)	42.3	-41.5	-55.5	51.9	-98.3
영업외손익	-30	20	50	-21	-4
금융수익	23	43	68	16	24
금융비용	53	21	17	32	23
기타영업외손익	-1	-2	-0	-6	-6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98	153	110	69	-3
증가율(%)	9.4	-22.4	-28.5	-37.1	적전
법인세비용	40	33	22	26	-15
계속사업이익	158	120	87	43	12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58	120	87	43	12
당기순이익률(%)	9.6	8.5	4.5	2.5	0.7
증가율(%)	7.9	-24.0	-27.2	-51.2	-70.8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44	130	95	42	12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777	1,275	958	1,006	1,145
현금성자산	329	127	176	213	341
단기투자자산	36	6	6	4	4
매출채권	188	280	72	245	248
재고자산	210	813	153	151	153
기타유동자산	14	49	552	395	400
비유동자산	599	639	653	674	652
유형자산	373	374	421	406	404
무형자산	170	156	155	138	118
투자자산	48	8	4	51	51
기타비유동자산	8	101	73	79	79
자산총계	1,376	1,914	1,611	1,681	1,797
유동부채	330	789	440	510	654
단기차입금	121	95	188	180	320
매입채무	37	351	74	134	136
기타유동부채	172	343	178	196	198
비유동부채	10	42	18	12	12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0	42	18	12	12
부채총계	340	830	459	522	666
지배주주지분	951	1,034	1,111	1,116	1,088
자본금	50	50	50	50	50
자본잉여금	223	223	223	223	223
자본조정 등	-51	-62	-62	-84	-118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1	1	1
이익잉여금	729	823	898	926	932
자본총계	1,036	1,084	1,153	1,159	1,131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72	-83	95	174	84
당기순이익	158	120	87	43	12
유형자산 상각비	29	51	55	56	63
무형자산 상각비	11	18	19	19	20
외환손익	7	4	0	7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60	-246	-22	55	-6
기타	7	-30	-44	-6	-5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36	9	-96	-76	-58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38	36	3	-42	0
유형자산의 감소	0	1	0	2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70	-42	-81	-42	-60
기타	-28	14	-18	6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	-128	47	-61	99
차입금의 증가(감소)	35	-26	90	-5	14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42	0	0	0
배당금	-29	-41	-19	-15	-7
기타	-4	-19	-24	-41	-34
기타현금흐름	-2	1	3	-1	3
현금의증가(감소)	135	-202	49	36	129
기초현금	194	329	127	176	213
기말현금	329	127	176	213	341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9.2	9.9	4.9	15.7	43.8
P/B(배)	1.4	1.2	0.4	0.6	0.5
P/S(배)	0.8	0.9	0.2	0.4	0.3
EV/EBITDA(배)	4.4	6.7	4.0	4.1	6.8
배당수익률(%)	3.2	1.6	3.2	1.1	1.3
EPS(원)	1,443	1,298	947	420	123
BPS(원)	9,511	10,338	11,103	11,161	10,879
SPS(원)	16,493	14,030	19,348	16,800	17,028
DPS(원)	420	200	150	70	70
수익성(%)					
ROE	16.2	13.1	8.8	3.8	1.1
ROA	12.5	7.3	5.0	2.6	0.7
ROIC	26.9	11.0	3.7	4.4	-0.7
안정성(%)					
유동비율	235.2	161.6	217.6	197.4	175.0
부채비율	32.9	76.6	39.8	45.0	58.9
순차입금비율	-21.6	1.3	2.7	-2.3	-1.3
이자보상배율	44.3	19.3	5.4	10.6	0.1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3	0.9	1.1	1.0	1.0
매출채권회전율	5.3	6.0	11.0	10.6	6.9
재고자산회전율	10.9	2.7	4.0	11.1	11.2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티이엠씨씨엔에스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11.11	티이엠씨씨엔에스-소재 정상화와 장비 성장의 이중 모멘텀
2023.02.06	오션브릿지-이차전지 장비로 반도체 장비의 아쉬움을 달랜다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